

지난 연말 영국에서 서점이 활기를 띤 것은 인상적이었다. 서가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데, 아예 장바구니엔 한가득 책이다. 손자를 위한 장난감 책부터 아내를 위한 요리책, 친구를 위한 여행서, 노인을 위한 오디오북까지. 선물로 책은 으뜸이다. 연말 대목을 노리는 서점들의 다양한 홍보는 이때야 비로소 빛을 본다. '워터스톤즈'는 18억원의 홍보비용을 책정했다. 12월 첫주부터 크리스마스 직전인 22일까지의 판매량이 일년 총 매출액의 25%를 차지한다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매출활기의 물밑에선 하드커버 할인판매가 한몫하고 있다. 책의 평균가격은 여전히 5.99 파운드(약 1만원) 안팎. 영화 한편 보거나, 생맥주 두잔 마실 값이다. 어쨌든, 지난해 전체 매출은 10월 현재까지 약 370억원 정도로 전년도보다 약간 늘었다. 소설은 존 그리샴, 토마스 해리스 등 미국 소설이 강세고, <해리 포터> 시리즈는 지금도 일주일에 5만부씩 팔린다.

**피터 케어리가 부커상 수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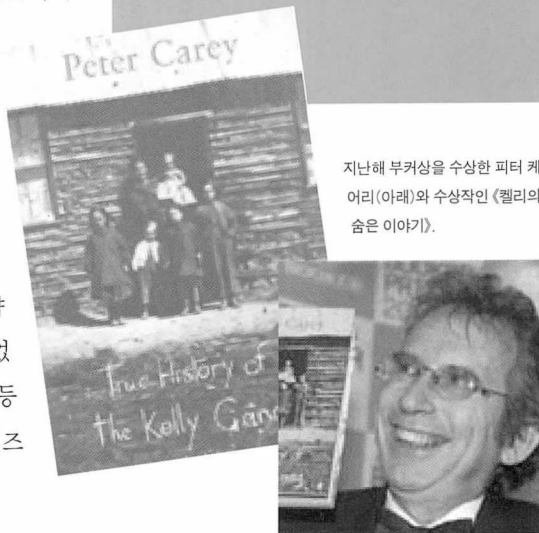
지난해 출간된 책 가운데 소설분야는 비교적 풍성했다. 몇년째 부커상 리스트는 단골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다름없다. 2001년도 부커상은 피터 케어리의 <켈리의 숨은 이야기(True History of the Kelly Gang)>. 강력 후보작이던 이언 맥기언의 <속죄(Atonement)>를 제치고 수상해 더욱 논란이 많았다. 두 후보 모두 이미 부커상을 받았는데, 이언은 불과 3년 전에 받았기에 수상에서 탈락했다는 후문이다. 피터의 소설은 호주 갱단의 전설처럼 전해오던 네드 켈리의 입을 빌어 쓴 내용이 흥미진진했고, 이언의 책 역시 지적이고 정연한 구성으로 사랑을 받았다.

조나단 프란첸의 <궤도수정(The Corrections)>은 연말 돌풍을 몰고왔다. 가족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섬세한 관찰이 독자를 끌어들이었다. 멜빈 브랙의 <전쟁의 아들(A Son of War)> 또한 2차세계대전 소년시절을 통해 노동자 계층을 섬세하게 포착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책으로 기억된다. 데이비드 에드

# 2001년 영국 독서시장을 이끈 책들

소설분야 풍성하고, 전기류 · 여행서 · 아동물 출판 꾸준해

김지원 | 출판칼럼니스트



지난해 부커상을 수상한 피터 케어리(아래)와 수상작인 <켈리의 숨은 이야기>.

몬드와 존 아이디노의 <비트겐슈타인의 포커(Wittgenstein's Poker)>는 대철학자 비트겐슈타인과 칼 포퍼가 1946년 10월 25일 만났던 10분간의 만남을 설정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 베릴 베인브리지의 <퀴니에 따르면>은 사무엘 존슨을 되살린 흥미진진한 역사소설이자 전기소설 베스트셀러로 꼽힌다.

올해는 영국소설가 V.S. 나이폴이 노벨상을 수상해 특히 각별했다. 하지만 트리니다드 출신의 브라만 노동자 손자인 나이폴의 수상 소식에 정작 영국 언론은 냉정하기만 했다. 독선적인데다가, 자신의 편견을 진실인 양 번정거리는 글쓰기로 나이폴은 고향인 인도에서도, 고국인 영국에서도 '아웃사이드'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문장을 쓴다'는 찬탄을 받은 69살의 노벨상 수상작가에게 영국은 최근작 <절반의 인생(A Half of life)>을 부커상 후보에서 일찌감치 제외시켰다.

**비소설 분야에선 로이 제킨스의 <처칠> 주목할 만해**  
비소설 분야에선 로이 제킨스가 쓴 <처칠>이

각별히 주목받았다. 80세가 넘은 대가의 저작은 적절한 유머와 학술적 탐구, 정치적 체험과 동정어린 픽션 등이 조화를 이뤘다는 평이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몇 년 전 타계한 아일랜드 출신 작가 아이리스 머독의 생애를 정리한 피터 콘라디의 <아이리스 머독>도 손에 꼽히는 전기다. 9월 11일 이후 이슬람에 대한 관심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유배에 관한 명상(Reflections on Exile)> 페이퍼백판에 새삼 귀를 기울이게 했고, 사이드와의 인터뷰를 모은 <권력, 정치, 문화(Power, Politics and Culture)>가 서구인의 관점을 넓히는 역할을 맡았다.

여행서로는 2차대전 때 군인으로 첫 대면한 이탈리아를 다시 찾은 쟈 모리스의 <트리에스테, 어디에도 없는 곳(Trieste and the Meaning of Nowhere)>이 역사적 깊이와 시적 여운을 던지며 돋보였다. 우울증의 고통을 건조하게 들여다보며 예리한 지성으로 인간의 깊은 마음속을 여행한 앤드루 솔로몬의 <한낮의 마신(The Noonday Demon)> 또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어린이책에선 크리스마스의 고전 <눈사람>의 작가 레이몬드 브릭스가 석기시대 소년 '유지'의 창의적 발상을 소재로 한 <유지(Ug)>와, 이즈음 가장 인기가 높은 재클린 윌슨의 <버려진 아이(Dustbin Baby)>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여자 아이의 심경을 생생히 그려 초등학생생 어린이들의 독서시장을 이끌었다. ■